

2012
December 7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일본의 재생의료 실용화 방안

정책동향

- [미국] 미 FDA, 의료기기 업계와 비영리 독립기구 'MDIC' 설립
- [EU] EU집행위, 영 정부 주류 최저가격제 계획에 제동
- [일본] 일본 사회보장비 1백조엔 돌파 ... 연금·의료비가 82%
- [아시아] 인도, 영국 AZ 항암제 '이레사' 특허 항소 기각

산업동향

- [미국] 미 환자 복약 준수 미이행, 제약업계에 1천9백억불 손실 초래
- [EU] 덴마크 겐토프테대, "갑상선 기능 항진, 부정맥 위험 높여"
- [일본] 일본, 이탈리아 소린 '미트플로대동맥 심낭 심장 판막' 승인
- [미국] 미 웰라, 첨단 마이크로라이트 기술 접목 '일루미나 컬러' 시판

신규보고서

- [EU] 유럽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 [글로벌] 글로벌 제약업체 지속적 성장의 조건

포커스

- 일본의 재생의료 실용화 방안 1

정책동향

- [미국] 미 FDA, 의료기기 업계와 비영리 독립기구 'MDIC' 설립 5
- [미국] 미 법원, 거대 담배업체들에 소비자 기만 공개인정 명령 5
- [미국]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대책 마련 부심 6
- [EU] EU집행위, 영 정부 주류 최저가격제 계획에 제동 6
- [일본] 일 후생성, 즐기세포 장기보관 6개 기관 선정 7
- [일본] 일본 사회보장비 1백조엔 돌파 ... 연금·의료비가 82% 7
- [아시아] 인도, 영국 AZ 항암제 '이레사' 특허 항소 기각 8
- [중국] 홍콩 임산부, 중국 낙태 원정수술 성행 8

산업동향

- [미국] 미 환자 복약 준수 미이행, 제약업계에 1천9백억불 손실 초래 9
- [글로벌] 미 화이자, 스위스 네슬레에 뉴트리션 사업부문 매각 완료 9
- [글로벌] 영 스미스앤네퓨, 미 헬스포인트 바이오세러퓨틱스 인수 10
- [일본] 일 교와·산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스이니정' 발매 10
- [일본] 일 다이닛폰, 정신 분열증 치료제 '라투다'로 동남아 공략 11
- [미국] 미 캘리포니아대, "흉부 CT가 유방암 초래 가능성" 11
- [EU] 덴마크 겐토프테대, "갑상선 기능 항진, 부정맥 위험 높여" 12
- [일본] 일본, 이탈리아 소린 '미트플로대동맥 심낭 심장 판막' 승인 12
- [중동] UAE 부르질병원, 위장병 예방·치료에 특화 13
- [미국] 미 웰라, 첨단 마이크로라이트 기술 접목 '일루미나 컬러' 시판 13
- [프랑스] 프랑스 로레알, 스페셜리스트 메이크업 '어번 디케이' 인수 14
- [프랑스] 프랑스 코티,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향수 파트너십 체결 14

신규보고서

- [EU] 유럽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15
- [글로벌] 글로벌 제약업체 지속적 성장의 조건 16

포커스

일본의 재생의료 실용화 방안

재생의료는 가공된 인간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 본 자료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12년 11월 발표한 '재생의료의 실용화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再生医療の実用化・産業化に関する研究会)'를 통해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사안을 고찰

□ 일본 재생의료 실용화 배경 및 과제

- (배경) 재생의료는 가공된 인간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난치병 치료법을 찾아내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
 - 재생의료는 의료기술에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치료법이기 때문에 폭넓은 첨단 기술력이 필요
 - 현재 미국과 유럽이 재생의료 실용화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세포) 노벨의학상 수상 등 연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는 지연
 - 일본 정부는 재생의료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생의료 실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검토할 예정

※ 일본의 재생의료 분류

- ▶ 일본에서 재생의료는 △자기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 △타인의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 △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저분자 화합물 등으로 분류
 - 재생의료의 새로운 치료 행위이기는 하지만, 기존 치료 행위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생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치료에 이용되는 세포·조직의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医료를 분류
- ▶ 자기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로는 재건치료, 면역세포치료, 미용성형외과 분야에서의 자가줄기세포 등이 대표적

- 현재 일본에서 승인된 재생의료 제품은 피부와 연골로 모두 환자 자신의 세포·조직으로 가공
- 자기 유래 iPS 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에도 환자 자신의 세포를 단순히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 조작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환자와의 친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 ▶ 장기·골수이식, 수혈 등 타인의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는 혈액형이나 면역과 같이 환자에 적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와는 다른 요건이 필요
- ▶ ES 세포, iPS 세포, 동종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는 타인의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 중에서도 세포·조직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장기·골수 이식, 수혈 등에 비해 대중적 치료 가능성이 더 높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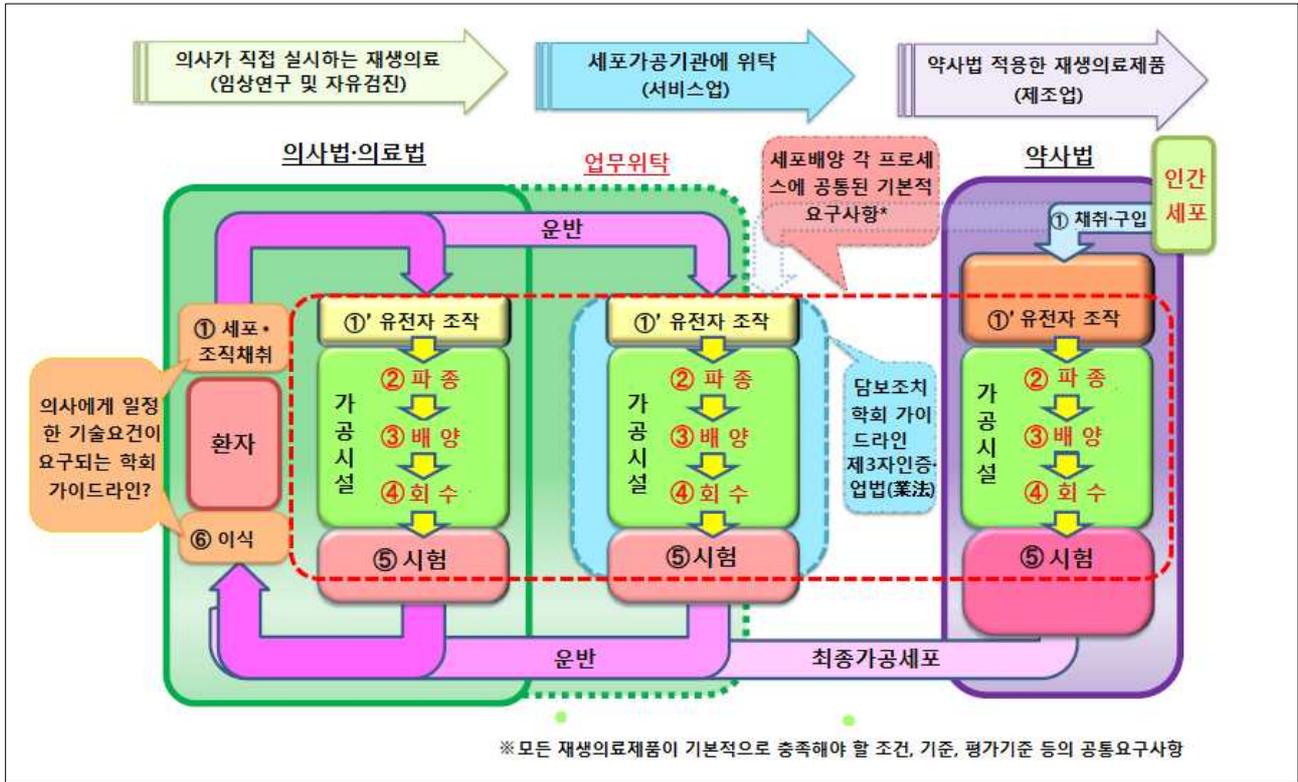
- **(과제)** 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해서는 △재생의료의 다양성에 입각한 제도 검토, △합리적인 비용의 정착, △국산제품 개발 등이 필요
- **(제도)** 재생의료에 사용하는 세포가 환자 자신의 세포인지, 유전자를 조작했는지 등에 관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임상연구시 필요한 세포·조직의 가공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
- **(비용)** 재생의료 세포나 조직의 효율적인 가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당 재생의료 제품의 제조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어 비용의 합리화가 요구
- **(제품 개발)** 비용이 상승하면 재생의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 정비와 함께 주변기기, 시약 등 고가의 해외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제품 개발도 시급

□ **일본 재생의료 실용화 정책 사안**

- **(약사법 개정)** 현재 일본에서 승인된 재생의료 제품은 자기 세포·조직을 이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
-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법·의료법이 적용되는 반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적용

- * 현행 일본 약사법은 저분자 화학물 중심의 화학물질을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제도
- 자기 세포·조직을 이용한 치료에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생의료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이 시급
- **(세포가공위탁)** 현재 의사·의료기관이 채취에서 이식까지 전과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협력 하에 전문분야가 아닌 세포·조직의 가공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비효율성과 비용 상승을 초래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 하에 세포가공기관 등의 외부전문사업자에 세포의 가공을 위탁하는 구조가 바람직
 - * 의사·의료기관이 의사법·의료법 하에서 환자 자신의 세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세포·조직 가공을 세포가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의사·의료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세포가공기관은 의사·의료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공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
 - 위탁 세포가공기관 선정시 학회 가이드라인 등 일정한 기준과 제 3자 인증 등을 통해 해당 세포가공기관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
- **(의사·의료기관)** 재생의료는 기존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는 달리 세포·조직의 가공 공정만으로는 치료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
 - 자가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는 채취한 세포·조직이 치료에 적절해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한 세포·조직이라도 의사의 이식 과정에서 적절한 기술·환경·판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재생의료 관련 제도를 검토할 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세포·조직 가공에 필요한 요건과 함께 의사·의료기관 요건도 반드시 고려
- **(사업환경 정비)** 세포가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최종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포가공 공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

<그림> 일본의 재생의료 사업 전개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이 설정되면 세포가공기관의 설비, 검사 종류, 회수 기준 등이 명확해져 비용 절감이 가능
- 배양지, 시약, 최종가공품 운반기기 등 세포가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변기기에 관한 국가의 지원책도 검토
- 세포가공기관이 위탁받는 세포가공건수가 늘어나려면 적응증 확대를 위한 치료법의 기술 혁신이 필요
-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생의료 치료를 보험 치료 또는 보험외 병용요양비 제도로 처리하거나 민간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 * 자가세포 치료의 경우 원재료의 특성이 환자마다 달라서 제한된 증례로는 유효성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적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검토
- 세포가공기관 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질의 안정성,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

정책동향

미 FDA, 의료기기 업계와 비영리 독립기구 'MDIC' 설립

- 미 식품의약국(FDA)은 의료기기 업계와 비영리 독립기구인 '의료기기 혁신 컨소시엄(Medical Device Innovation Consortium : MDIC)'을 설립할 계획
 - MDIC는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과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환자들이 이들 의료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보유
 - MDIC는 FDA와 라이프사이언스앨리(LifeScience Alley : LSA, 생명과학협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환자단체· 학계· 비영리 기관 등이 연대, 일단 의료기기 접근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
 - FDA가 의료기기 업계와 단체를 설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기기 업계가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신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FDA, 2012.12.03]

미 법원, 거대 담배업체들에 소비자 기만 공개인정 명령

-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Gladys Kessler) 판사는 담배회사들이 그 동안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해 왔음을 공개인정**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부착하고 광고 및 웹사이트에도 밝히라고 명령
 - 이번 판결에 따라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레이놀즈(Reynolds), 로릴러드(Lorillard)는 “미국에서는 하루에 1천2백명의 흡연자가 사망하고, 간접 흡연자도 매년 3천명 이상이 숨을 거둔다” 등의 문구 게시가 불가피
 - 앞서 미 법무부는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면 소송을 제기
 - 미국 정부와 담배회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99년 클린턴 당시 행정부가 거대 담배업체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데서부터 시작
 - * 당시 대법원은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06년 케슬러 판사가 담배업체의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 [USA Today, 2012.11.27]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대책 마련 부심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급성 중추신경계 질환인 웨스트나일(West Nile) 바이러스 피해 대책 마련에 부심
 - 11월27일 현재 CDC에 보고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사망자 236명을 포함해 총 5천245명으로 '03년 11월 이후 최악의 수준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 감염자의 80% 정도가 텍사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미시시피· 미시간·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의 13개 주에 집중된 가운데 1/3 정도가 텍사스주에서 발생
 - CDC는 주민들에게 △웨스트나일에 대한 정보 제공 △집안으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설치 △외출시 긴소매 옷 착용 등을 당부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 중 [CDC, 2012.11.27]

EU집행위, 영 정부 주류 최저가격제 계획에 제동

- EU집행위원회는 주류에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재화의 자유이동’을 규정한 EU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경고 서신을 영국 정부에 전달
 - 또 프랑스 등 와인 생산국은 최저가격제 도입 시 영국 정부를 제소한다는 방침
 - 영국 정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와 범죄 발생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알코올 1유닛당 45펜스 이하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
 - * 알코올 1유닛은 맥주 200mL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양에 해당
 - 이 조치가 도입되면 보통 크기의 와인과 보드카는 병당 각각 4.05 파운드와 11.70 파운드, 맥주는 캔당 0.9 파운드 이하로 판매될 수 없어 결국 주류 가격이 인상되면서 음주 가구당 연 1백 파운드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
 - 영국 정부는 최저가격제가 도입되면 연간 주류 소비량이 3.3% 감소하고 음주로 인한 병원 입원은 2만4천건, 범죄는 5천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보험(NHS)에 투입할 계획 [Daily Mail, 2012.11.29]

일 후생성, 줄기세포 장기보관 6개 기관 선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도만능줄기(iPS) 등 인간 줄기세포를 장기간 보관하는 6개 기관을 선정
 - 이들 기관에는 인간 줄기세포를 환자에 이식한 후 남겨둔 세포를 보관해 두는 ‘인간줄기세포아카이브’가 설치

<보관 세포 및 기관>

보관 세포	기관
iPS세포	첨단의료진흥재단
	구마모토대학
배아줄기세포(ES세포)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교토대
성체줄기세포	오사카대
	도쿄여자의대

- 후생성은 줄기세포 이식 이후 암이 발생할 가능할 경우 발생 과정을 분석하는 등 재생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을 선정했으며, '13년부터는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

[厚生労働省, 2012.11.29]

일본 사회보장비 1백조엔 돌파 ... 연금·의료비가 82%

- 일본 정부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0 회계연도('10년 4월~'11년 3월) 사회보장비가 전년보다 3조6천272억엔 증가, 1백3조4천879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
 - 사회보장비는 연금과 건강보험 및 생활보호비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으로, 정부 예산과 국민이 납부한 연금·건강보험료로 충당되며, 지난 '90 회계연도에 50조엔을 넘어선 데 이어 20년 만에 1백조엔을 돌파
 - '10 회계연도 사회보장비용 중에는 연금이 50.7%, 의료 31.2%, 기타 복지가 18.1%로 연금과 의료 비용이 전체의 81.9%를 차지해 일본 사회가 늙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
 - 한편 연구소는 오는 '25년 사회보장비가 150조엔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비(74조엔)가 연금(60조엔)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산케이뉴스, 2012.11.29]

인도, 영국 AZ 항암제 ‘이레사’ 특허 항소 기각

- 인도지식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 IPAB)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항암제 ‘이레사(Iressa)’ 특허 항소를 기각
 - AZ는 인도 특허청이 지난 '07년 이레사는 이미 개발 방법이 알려져 있어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특허 승인을 거부한 데 대해 IPAB에 항소했으나 IPAB 역시 특허청과 동일한 이유로 AZ의 항소를 기각
 - 이번 결정은 인도가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 승인에 엄격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인도 정부는 올 초 독일 바이엘의 항암제 ‘넥사바’의 제네릭을 국내 제약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 한편 IPAB의 기각으로 스위스 노바티스는 항암제 ‘글리벡’, 로슈는 C형 간염 치료제 ‘페가시스’, 미국 화이자는 항암제 ‘수텐’ 등이 특허를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제약업체들은 인도 정부를 비판

[Hindu Business Line, 2012.11.28]

홍콩 임산부, 중국 낙태 원정수술 성행

- 낙태를 희망하는 홍콩 임산부 중 1/3 이상이 수술 장소로 중국을 선택하는 등 홍콩 임산부들 사이 중국으로의 낙태 원정수술이 성행
 - 특히 홍콩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센젠시의 산부인과 병원들은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건너 온 임산부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임산부가 4~5일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 이는 그동안 중국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것과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홍콩 임산부들은 임신 10주 이상이면 낙태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을 피하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
 - 또 중국에서는 신분 노출 없이 저비용으로 수술이 가능해 중국을 찾는 홍콩 임산부 중에는 16세 이하의 소녀도 상당수 포함
 - 이러한 중국 낙태 원정수술은 낙태 임산부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홍콩 당국 발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 [South China Morning Post, 2012.12.03]

산업동향

미 환자 복약 준수 미이행, 제약업계에 1천9백억불 손실 초래

- 미국의 캡제미니 컨설팅(Capgemini Consulting)과 헬스프라이스 테크놀로지스(HealthPrize Technologies)는 미국 만성질환 환자들이 의료진 지시대로 복약하지 않아 제약업계가 연간 1천880억불을 손해보고 있다고 분석
 - 만성질환에는 당뇨병·고혈압·고콜레스토롤 등이 포함되며, 복약 준수 미이행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손실은 연 5천640억불로 추산
 - 이러한 매출손실은 지난 '04년 영국 데이터모니터(Data Monitor)의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3백억불(글로벌 시장)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대다수 제약업체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
 - * 미국에서 항당뇨제 복약준수 미이행에 따른 매출손실은 114억불로 추산
 - 캡제미니와 헬스프라이스는 복약 준수 비율이 10%만 올라도 제약업계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복약 준수 제고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

[Med City News, 2012.11.26]

미 화이자, 스위스 네슬레에 뉴트리션 사업부문 매각 완료

- 미국 화이자(Pfizer)가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스위스 네슬레(Nestlé)에 대한 뉴트리션 사업부문 매각 작업을 완료
 - 화이자는 지난 4월 핵심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뉴트리션 사업부문 지분 85% 이상을 네슬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이번 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19억불에 넘기는 작업이 완료
 - 뉴트리션 사업부문은 전 세계 60여국에서 영·유아용 유동식, 소아용 영양식, 임산부 및 성인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11년에 21억불의 매출과 1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
 - * 뉴트리션 사업부문은 와이어스 뉴트리션(Wyeth Nutrition)이 모태

[Drug Store News, 2012.12.03]

영 스미스앤네퓨, 미 헬스포인트 바이오세러퓨틱스 인수

- 영국의 의료기술 업체 스미스앤네퓨(Smith & Nephew)가 미국의 생물작용(bioactive) 상처 치료제 개발 업체 헬스포인트 바이오세러퓨틱스(Healthpoint Biotherapeutics)를 7억8천2백만불에 인수하기로 결정
 - 헬스포인트 바이오세러퓨틱스는 심한 화상으로 비롯된 상처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콜라젠 산틸(Collagenase Santyl)’ 연고를 제작해 온 업체로, 현재는 정맥 다리 궤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
 - * 이 회사 임직원 수는 460명이며, 인수 작업은 올해 안으로 완료될 전망
 - 미국 생물작용 상처치료제 시장은 10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해 헬스포인트 바이오세러퓨틱스 매출은 1억9천만불로 지난해 1억5천1백만불에서 4천만불 정도 증가할 전망
 - 스미스앤네퓨는 헬스포인트 바이오세러퓨틱스 인수로 미국 내 상처치료 사업 매출이 2배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all Street Journal, 2012.11.28]

일 교와 산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스이니정’ 발매

- 일본 교와주식회사(興和株式会社)와 산와화학연구소(三和化学研究所)는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스이니정 100mg’ 발매에 들어간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스이니정은 일본 시장에서 6번째로 시판되는 DPP-4 억제제가 되었으며, 교와와 산와는 제품 개발에 이어 마케팅도 공동으로 수행
 - 스이니정은 1일 2회 복용하며, 병용 가능 약제로는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비구아나이드계 약제· 설폰닐우레아제· 티아조리딘계 약물
 - 교와는 스이니정의 발매로 고콜레스테롤 혈중치료제 리마로정, 혈압강하제 올메텍정과 함께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제품군을 모두 보유
 - 삼와는 스이니정 발매로 식후 과혈당 개선제 세이블정을 중심으로 한 당뇨병과 당뇨병 주변 영역의 치료제 확충에 성공 [日本經濟新聞, 2012.11.29]

일 다이닛폰, 정신 분열증 치료제 ‘라투다’ 로 동남아 공략

- 일본 다이닛폰스미토모(大日本住友)가 주력 제품인 정신 분열증 치료제 ‘라투다(Latuda, 성분명 : 루라시돈)’를 오는 '15~'16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시판하기로 결정
 - 다이닛폰은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싱가포르에 100%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제품판매를 위한 승인 신청, 마케팅, 물류 등 부문에서 동남아 현지 기업과 제휴를 체결할 계획
 - 다이닛폰은 오는 '22년 라투다로 동남아 시장에서 50억엔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 [Kabutan, 2012.11.28]

미 캘리포니아대, “흉부 CT가 유방암 초래 가능성”

- 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은 심장 또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이 빈번한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북미영상의학학회(Radi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연례회의에서 발표
 - 연구팀은 '00~'10년 심장 또는 흉부 CT 검사를 받은 1천6백여 여성의 방사선량(radiation dose)과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 이 같은 결론을 도출
 - 유방암 위험은 젊은 여성일수록 높았는데 23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량이 많은 심장 또는 흉부 CT 검사를 받았을 경우 10년 내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확인
 - * 그러나 유방암 발생률은 10만명당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T로 인해 유방암이 발생하는 절대적인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
 - CT 검사를 받는 여성 환자는 '00년에는 1천명 당 1백명이었으나 '10년에는 192명으로 늘어나는 등 CT 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세
 - 연구팀은 유방조직이 방사선 노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영상전문의는 방사선량에 신경을 써서 가능한 선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

[US News and World Report, 2012.11.27]

덴마크 겐토프테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정맥 위험 높여”

- 덴마크 겐토프테대 연구팀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부정맥의 대표적 형태인 심방세동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 BMJ)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은 58만6천명을 평균 5.5년 동안 관찰(동기간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였고 이 중 53%가 여성)
 - 그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방세동 발생률이 평균 30%, 갑상선 기능 수치가 정상범위의 상단에 위치한 사람도 12%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
 - *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내분비 질환이며, 심방세동은 좌우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해 가늘게 떠는 현상으로 지속될 경우 뇌졸중 또는 심부전 위험이 증가

[Health Day News, 2012.11.27]

일본, 이탈리아 소린 ‘미트플로대동맥 심낭 심장 판막’ 승인

- 일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Japa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 Agency : PMDA)는 이탈리아 소린그룹(Sorin Group)의 ‘미트플로 대동맥 심낭 심장 판막(Mitroflow Aortic Pericardial Heart Valve)’을 승인
 - 이 제품은 특히 대동맥 근부가 작거나 좁은 환자에 이식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을 보유
 - 이 제품은 일본라이프라인(Japan Lifeline)사가 '13년 1월부터 독점 출시할 예정
 - 한편 일본 내 인공 심장 판막을 이용한 심장 판막증의 치료 건수는 연간 약 2만 건으로 추산



[News-Medical, 2012.12.04]

UAE 부르질병원, 위장병 예방·치료에 특화

- UAE의 부르질병원(Burjeel Hospital)은 UAE 국민 중 무려 2/3가 위장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부르질병원은 위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특화할 계획이라고 강조
 - 이를 위해 부르질병원은 세계적 위장병 권위자인 벨기에 에라스미대 야커스 디비어(Jacques Deviere) 박사를 초빙해 위장과를 개설, 첨단 내시경을 이용한 소화기·간 계통 질환 검사를 비롯해 위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부르질병원은 미국 콜롬비아대병원과 협력해 비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비만을 막기 위한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
 - * UAE 국민이 대거 위장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체중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UAE 남성 중 67%, 여성 중 72%가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인 것으로 집계 [Gulf Today, 2012.11.26]

미 웰라, 첨단 마이크로라이트 기술 접목 '일루미나 컬러' 시판

- 미 P&G의 헤어케어 브랜드 웰라(Wella)가 '13년 1월부터 미국 전역의 뷰티살롱에서 새로운 헤어케어 라인 '일루미나 컬러(ILLUMINA Color)'를 시판할 계획
 - 일루미나 컬러는 첨단 염모과학과 마이크로라이트(MICROLIGHT) 기술이 접목돼 최근 20여년 사이 웰라가 선보인 헤어케어 라인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제품 이용시 건강한 모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염색이 가능
 - 마이크로라이트는 캡슐화된 수백 만 마이크로 입자들이 모발에 미세한 금속을 잔류시키는 기술로, 표피 손상 없이 모발 표면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한층 투명하게 비치는 염색 효과를 발휘
 - 최근 미국 여성의 62%가 모발손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염색을 기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일루미나 컬러 시판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

[Heraldonline, 2012.12.03]

프랑스 로레알, 스페셜리스트 메이크업 ‘어번 디케이’ 인수

- 프랑스 로레알(L’Oreal)이 미국 캐스타니아 파트너스(Castanea Partners)의 스페셜리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어번 디케이(Urban Decay)’를 인수
 - 어번 디케이는 주로 젊은층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립스틱·마스카라·네일폴리시·아이라이너·아이새도우 제품들을 발매해 왔으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1억4천만불을 상회
 - 미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에서 스페셜리스트 메이크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로레알은 어번 디케이 인수로 자사의 핵심 브랜드 룩스(Luxe) 포트폴리오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인수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수 금액은 2억5천만 ~ 3억불 정도로 추산되며, 인수는 올해 안 완료될 전망 [BusinessWeek, 2012.11.26]

프랑스 코티,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향수 파트너십 체결

- 프랑스 코티(Coty)는 세계적 팝스타인 케이티 페리(Katy Perry)와 ‘케이티 페리’ 향수를 개발·발매하는 파트너십을 체결
 - 또 코티는 페리 브랜드로 이미 시판되고 있는 향수 ‘퍼(Purr)’와 ‘미아우(Meow)’의 공급도 전담하기로 합의
 - * 퍼와 미아우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전문가들은 이들 향수가 페리의 멀티페이스 캐릭터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평가
 - 페리는 그래미상 수상자 후보에 8차례나 오를 정도로 인기 정상의 팝스타로, 앨범 틴에이지 드림(Teenage Dream)은 전세계에서 5백만장 이상이 판매된 데다 싱글 다운로드 횟수만 5천만 건을 상회
 - 코티는 현재 캘빈클라인(Calvin Klein)·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플레이보이(Playboy) 등 향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로 페리 특유의 음악과 삶이 혁신적인 향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팝스타 이름을 따 시판되고 있는 향수로는 리하나(Rihanna),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등 [Complete Music Update, 2012.12.03]

신규보고서

유럽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과 전망

- 시장조사업체인 영국의 오가닉 모니터(Organic Monitor)는 유럽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유럽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European Market for Natural Personal Care Products)’ 연구 자료를 '12년 11월 공개
 - 오가닉 모니터는 유럽을 휩쓸고 있는 재정위기가 역내 천연 퍼스널케어 유통과 소비자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은 한자리 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유럽 주요국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

<주요국 퍼스널케어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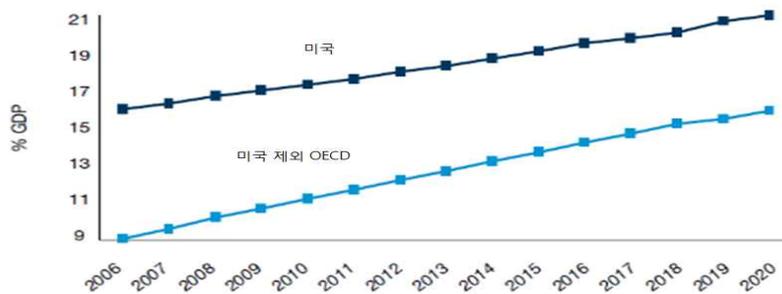
국가	현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 ○ 불독(Bulldog) 브랜드의 경우 미국과 호주를 타깃으로 하는 등 상당수 천연 퍼스널케어 브랜드들이 역내 시장을 떠나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최대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이나 올 들어 성장세가 한풀 꺾인 상태 ○ 현재 천연 퍼스널케어 제품들이 독일 퍼스널케어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7% 정도 ○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알베르테(Alverde) 같은 PL(Private Label) 제품이 인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레알 그룹의 가르니에(Garnier), 우수아이아(Ushuaia), 바이오템(Biotherm), 믹사(Mixa) 등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가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천연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5% 이하

- 오가닉 모니터는 향후 유럽의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천연 퍼스널케어 시장도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
 - 그러나 업계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거대 다국적 화장품 업체들 사이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견고한 제품 공급·유통 전략을 구비한 브랜드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

글로벌 제약업체 지속적 성장의 조건

-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 PwC)는 '12년 11월 ‘20년 제약업계 : 비전 - 어느 길로 갈 것인가?(Pharma 2020 : The vision - Which path will you take)’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글로벌 각국 정부가 헬스케어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구비되고 있어 제약업체들은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쟁취하는 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 고령화 확산 등 인구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헬스케어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
 - 오는 '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총 1조불을 헬스케어 부문에 투입하는 가운데 미국은 GDP의 무려 21%,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도 평균 GDP의 16%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

<그림> '06~'20 글로벌 보건산업 지출



자료 : PwC 보건연구소(PwC Health Institute)

- 건강보험 개혁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보건산업이 확대되면서 '20년 글로벌 제약 매출은 1조6천억불에 달할 전망
- 그러나 제약업체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 이익으로 연결하려면 △핵심 파이프라인 구축 △R&D 생산성 제고 △효과적 신약 개발을 통한 소비자 기대 충족 활동이 요구
 - 또 새로운 약품 수요자가 제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확한 포지셔닝을 설정하는 전략 수립도 필요
 - 이와 함께 실증적 통계 데이터에 근거,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판매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지출과 투자를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정책 실행이 요구